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 3 권

重傳 이희빈

소개글

아침에 뜨는 해와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
치렁치렁 긴 머리에 곱게 차려입은
웃 맵시 하며
입가에 머금은 밝은 미소 하며,
그리도 아름답던 그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초롱초롱한 눈망울엔 방금 내린 이슬처럼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던 그녀의 모습은
지금도 나의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
주리를 틀고 앉아 있네...!

그토록 열렬한 열정 덩어리의 아름답던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안타까웁구나...!
조용히 눈을 감고 행복을 빌어보는
그 옛날의 잊을 수 없는 사랑이여.....!

잊을 수 없는 사랑을 그리워 하며 한줄 한 줄 엮어가다 보니
이렇게 행사가 되었답니다.
한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밀려오는
그 운명의 소용돌이를 헤어나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듯 제자리도 못가고 말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목차

1	가나다라.....(201) (한 백년을 못사는 인생)	8
2	가나다라.....(202) (노동착취를 당하는 노동자들)	9
3	가나다라.....(203) (하는 일에 마가 끼지 않으려면)	10
4	가나다라.....(204) (늡으면 추해지는 모습을 안보이려고 애를 써도)	11
5	가나다라.....(205)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데)	12
6	가나다라.....(206) (위 아래를 모르는 아이들)	13
7	가나다라.....(207) (장마철에는 모두 조심을 하여야)	14
8	가나다라.....(208) (정녕 그렇게 가시렵니까)	15
9	가나다라.....(209) (장마철에 떠내려 온 양심)	16
10	가나다라.....(210) (은근 슬쩍 누구를 속이려 하지 마시구려)	17
11	가나다라.....(211)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순리)	18
12	가나다라.....(212) (만날 수 없는 인연)	19
13	가나다라.....(213) (당연한 사실)	20
14	가나다라.....(214) (상처를 아물게 했으면 좋겠구나)	21
15	가나다라.....(215) (마음을 사로잡는 칼피스 향기)	22
16	가나다라.....(216) (인생의 진리)	23
17	가나다라.....(217) (가장 무서운 적)	24
18	가나다라.....(218) (믿음을 주는 사랑을 찾으려면)	26
19	가나다라.....(219) (범을 잡으려면)	27
20	가나다라.....(220) (선술집에서)	28
21	가나다라.....(221) (당뇨병 환자들의 고민)	29
22	가나다라.....(222) (하도 어이없는 일)	31
23	가나다라.....(223)(고통받는 수재민들을 위해)	32
24	가나다라.....(224) (사랑의 맹서)	33
25	가나다라.....(225) (동정 못다는 며느리)	34

26	가나다라.....(226) (세월의 수레바퀴)	36
27	가나다라.....(227) (이 나라를 통일하세)	37
28	가나다라.....(228) (부엌에서 새는 바가지)	39
29	가나다라.....(229) (맛이 일품인 수제비 한 그릇)	41
30	가나다라.....(230) (개천절 날 국민들께 고함)	43
31	가나다라.....(231) (돌계집의 삶)	44
32	가나다라.....(232) (물끄러미 바라 본 한 때의 풍광)	45
33	가나다라.....(233) (허무한 인생아)	46
34	가나다라....(234) (행복의 보따리)	48
35	가나다라...(235)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49
36	가나다라.....(236) (시련과 고통을 줄 인연이라면)	50
37	가나다라....(237) (곡주 한 잔을 마시니)	51
38	가나다라....(238) (토라진 마음을 돌리려면)	52
39	가나다라....(239) (그리운 어머니)	53
40	가나다라.....(240) (코스모스가 바라보는 세상)	55
41	가나다라.....(241)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쯤 오려는가)	57
42	가나다라.....(242) (손주녀석을 업었다가 그만)	59
43	가나다라.....(243) (몰래 갖다버린 양심)	60
44	가나다라.....(244) (팔자타령)	62
45	가나다라.....(245) (산불을 조심합시다)	64
46	가나다라.....(246) (솔직한 대화로서 풀어가십시오)	65
47	가나다라.....(247) (노인들이 생각 날 때)	66
48	가나다라.....(248) (그 숨소리가 이제는)	68
49	가나다라.....(249) (인과응보(因果應報))	69
50	가나다라.....(250) (근로자들을 생각해 주시오)	70

51	가나다라.....(251) (호호백발의 어머니)	72
52	가나다라....(252) (예사롭지 않았던 그 모습)	74
53	가나다라.....(253) (볼 수 없는 풍경)	75
54	가나다라.....(254) (살림을 잘하는 며느리)	76
55	가나다라.....(255) (어느 여인의 절규)	77
56	가나다라....(256) (놀이만 하는 고시준비생)	78
57	가나다라.....(257) (외로움을 달래 줄꺼나)	79
58	가나다라....(258) (자책골을 넣은 축구 선수의 마음)	80
59	가나다라.....(259) (겸손은 최고의 미덕)	81
60	가나다라...(260) (훌륭한 민족이 되려면)	82
61	가나다라....(261) (알차고 유익한 삶)	83
62	가나다라.....(262) (어찌 시절을 모른단 말인가)	84
63	가나다라.....(263) (가불 인생)	85
64	가나다라.....(264) (그 옛날의 기억)	86
65	가나다라...(265) (흐지부지 살아가지 마시구려)	87
66	가나다라.....(266) (이웃의 소중함을 아시나요)	88
67	가나다라....(267) (애국심의 고취)	89
68	가나다라...(268) (고등어 자반을 구워주시던 할머니)	90
69	가나다라....(269) (추심만 하는 푸닥거리)	91
70	가나다라.....(270) (국민들의 비난을 외면하는 위정자들)	92
71	가나다라....(271) (한눈을 팔고 있는 사이)	93
72	가나다라....(272) (아가씨 시절이 지나고 나면)	94
73	가나다라...(273) (잘 지키면 편안한 길)	95
74	가나다라....(274) (누구의 잘못일까?)	96
75	가나다라....(275) (가계부는 언제나 마이너스)	97

76	가나다라.....(276) (노을 속에 떠오르는 어머니 얼굴)	99
77	가나다라.....(277) (구세군 자선남비)	100
78	가나다라...(278) (그 때를 아십니까)	101
79	가나다라.....(279) (자만은 금물이니 언제나 노력하거라)	102
80	가나다라.....(280) (보고싶은 그 님)	103
81	가나다라....(281) (시종일관 사랑하라)	104
82	가나다라.....(282) (나눔 뒤에 오는 기쁨)	105
83	가나다라.....(283)(오류를 범하지 말라)	106
84	가나다라.....(284) (국민들의 환희)	107
85	가나다라.....(285)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시오)	108
86	가나다라.....(286) (수정할 수 없는 인생열차)	109
87	가나다라.....(287) (고구려사를 왜곡하지 말라)	110
88	가나다라.....(288)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111
89	가나다라.....(289) (꽃말의 의미)	112
90	가나다라....(290) (혼돈속에서)	113
91	가나다라....(291) (어린 시절의 추억)	114
92	가나다라....(292) (우리 민족의 설)	115
93	가나다라....(293) (집을 나온 사람)	116
94	가나다라....(294) (기도합니다)	117
95	가나다라.....(295)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118
96	가나다라....(296) (청소년 선도의 글)	119
97	가나다라.....(297) (고명딸을 보내는 심정)	120
98	가나다라....(298) (허위 과장 광고)	121
99	가나다라.....(299) (허탈한 심정)	122
100	가나다라...(300) (정월 대보름 맞이 정성)	123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진 마을옆

느티나무밑에 넓직한 마루 침상에는 노인이

드러누워 부채를 한손에 들고 파리를 쫓고 있네.

르네상스(Renassance : 프랑스 어)의 한 장면처럼

무거운 몸을 뒤척거리며 가슴에

브레지어도 하지 않고 축 처진 유방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시원한지 낮잠을 청해보는데

으레 잠이 잘 올 수 밖에 없지요!

즈름살이 온몸에 가득하고, 세월을

초기너기는 것은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크나큰 느티나무는 몇 백년을 살 수 있는데

트레마리를 한 이 사람은 한 백년을 못 사는구나...!

프시게(Psykhe : Psyche : 그리스 어)의 수레바퀴는

호지부지 한 번 흘러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구나...!

주해 : 르네상스 (문예 부흥)

무거운(무거운 : 고어)

즈름(주름의 사투리로 씀)

초기너기다 (섭섭히 여기다 : 원망스럽게 생각하다. 의 옛 고어)

프시게 (영혼 : 생명)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는 속담처럼, 고용주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만족할 만큼 들어줄리가 없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경우는, 고위직에서

로비로 인해 착취를 당하는 힘없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해 외치는 한 인권 변호사의 목소리를

보도기관 및 언론에서 조차 왜곡 보도를 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축소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오해(誤解)를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조직적으로 노동운동을 하며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초주검이 되도록 잡아다가 고문을 가하고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괴롭혔던 그런 시절에

토끼가 제 방귀에 놀라듯 하나 둘씩 벗겨지는

포악한 행동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고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느끼게 하는구나...!

가식이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나의 성공을 위해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다들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씨 성을 가진 사람이든

마씨 성을 가진 사람이든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굵지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도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을 것 입니다.

자만하지 말 것이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고 항상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를 실천에 옮기신다면

타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파도치듯 조석지변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면

하고자 하는 일마다 마(魔)가 낄 것이오..!

구차한 이 목숨이 더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원망 할 수도 없는 늡은 황혼을

두리번거리며 무거운 머리를 둘러보아도

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구나!

무정한 초침은 쉬지 않고 흘러가는데

부질없는 인생의 뒤안길을 더듬어보니

수정할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렸네!

우리네 인간들이 그렇게 속절없이

주어진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가야 하는가..?

추풍낙옆이 따로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런

쿠린내(구린 냄새의 강조어로 씀)나는 몸이 되니 모두 다 싫어하네.

투수의 손을 떠난 공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푸른 창공을 향해 손을 저으며 아무리 외쳐보아도

후련하게 대답하며 반기는 자가 그 누구뇨..?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니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정황이 없을 것이다.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여 모든 일을 다

리모콘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니, 아무리

미운 일을 상대방이 저질렀다고 하여도

비정하고 야박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정말

이 세상을 밝고 명랑한 사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의 이 어려움을 참고 견디기 바란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키를 짊 잡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언제나

티없이 맑고 정겨운 미소가 얼굴에 가득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결점을 꼬집어

히! 하고, 상대방을 절대로 비웃지 말기 바란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나쁜행동과 말을 조금씩 하다보면 남과 똑하면

다투게 되고, 함부로 어른들께도

라이타 불 좀 빌려달라고 버릇없이 굴게 됩니다.

마루 넘은 수레 내려가듯 거침없이 나쁜행동을 하며

바른 말로 아무리 타일러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사악(邪惡)함이 극에 달해, 결국

아버지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후레아들처럼

자기자신을 사장(死藏)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사람들은

카타르시스(katharsis : 그리스 어) 작용에 의해

타의 반 자의 반 후회를 하게 되지만, 부모님의 머리는

파뿌리처럼 늙어 세상을 떠나시게 되니..!

하관(下棺)시에 땅을 치며 통곡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강가에 위태롭게 설치한 천막은 비가 올 때

날떠러지에서 돌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당장 천막을 옮기는 것이 좋겠군요.?

량자가 조금 귀찮아 하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시행하십시오.!

방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물이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여러분께

왕청(仰請)하는 것은 이곳에서 매년 겪는

장마철에 위험한 경우를 종종 보았기 때문이오!

창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도 모르고 어두운 밤에

강강 춤을 추며 텐트 안에서 정신없이 신나게 놀다가

탕 하고 돌맹이가 떨어지 면서 갑자기 물이 늘어나

팡팡(갈팡질팡의 은어로 씀)거리다가 결국 천막과 함께 떠내려가니까

항상 여름철에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렵니까? 이렇게 애원하며 매달리는

나를 버리고 정녕 그렇게 가시렵니까..?

다시 한번 이 사랑을 생각하신다면

라인강을 건너 떠나지 마시구려.....!

마지막 길을 그토록 야멸차게 떠나버리지 마시구려..!

바닷물이 다 마를 때 까지 오직 당신만을 나는

사랑한다고 애원하며 굳게 굳게 믿어왔는데..!

아직도 이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주시오..?

자나 깨나 내 머리속에는 오직 당신의 모습만이

차곡 차곡 쌓여 있다오..!

카피(copy : 복사)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연가를

타다가 꺼져버린 촛불이 되게 하지 마시구려.

파란으로 물고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을

하느님이 꼭 지켜주실 것이라 믿고 있오...!

공중도덕을 잘 지키면 모두가 상쾌한 느낌이 들지요!

농구에도 규칙이 있고, 하물며

동물들도 자신들의 규칙을 정하고 살며

롱스타킹(long-stocking : 긴 양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 신지요..!

몽땅 쓰레기로 뒤덮히고 더럽혀진 것을 보면

봉사(소경)들이라도 진동하는 냄새로 감지할 수 있고

송구스러운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용달샘의 맑은 물이 바다에 까지 흘러가게

종말 처리장 및 오염원을 줄이고 물고기가 살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콩서리를 해먹은 입은 속일 수 없듯이

통채로 내다버린 양심의 무질서는 물속에다

풍당 집어 넣어도 그 쓰레기와 오물은

홍수가 났을 때 그 양심을 알수 있지요..!

구령이 담 넘어가듯 은근 슬쩍

누구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 든다면

두 말 할 필요없이 사기꾼으로 인정하지요!

루비 반지가 탐이 난다고 해서

무조건 훔친다면 자신의 손은 빛날지 모르지만

부정을 저지른 자신의 양심은 먹구름이 끼고

수모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인생길이 희망에 넘치는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직하게 살면

쿠데타(프랑스 어)도 일어나지 않고 테러(terror)도 없으며

투쟁하는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푸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최고 인생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양심적으로 살아 갑시다!

거역할 수 없는 하늘의 순리를

너는 어찌 따르려 하지 않느냐..?

더워 더워 하며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조금 있으면

러시아에서 불어오는 차거운 공기에 의해

머지 않아 추운 날이 올것이니, 더워도 참고

버티는 것이 좋을 것이니라...!

서늘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밤

여똥을 뚫고 반짝이는 북극성을 바라보니

저물어 가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구나...!

처서(處暑)가 지났는가(?) 했는데, 백로(白露)가 다가오니

커튼을 두꺼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구나...!

터발(텃밭의 사투리로 씀)에 고추는 빨갭게 익어가고, 곡식을 떨어

퍼담는 농부의 마음은 풍요로운데, 한가로이

허공을 날으는 고추잠자리가 가을을 말해주네....!

구중중하게 하루종일 비가 내리는 구나!

누렇게 익어가는 들녘에는 안개가 자욱한데....

두고 온 고향의 부모형제들은 언제나 만날꼬...?

루수(壘守)가 베이스(bass)를 지키지 못하면 야구가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이 서로 떨어져서

수 십년을 생사조차 알 수 없으니 무슨 락(樂)이 있으랴... ???

우리 민족은 어쩌다가 이렇게 눈물만 흘리고, 얼굴에

주름살만 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아야 하는가.....???

추석이 되었어도 갈 수 없는 고향, 만날 수 없는 형제들이여.....!!!

쿠션(cushion)이 아무리 좋은 방석에 앉아도 편하지 않고

투덜대며 한 많은 이 세상을 저주하며

푸념을 하여도 소용이 없고 눈물만 흘리며 통곡해도

후련하지 않음을 하느님도 아시는지 비만 내리는 구나.....!!!

가정경제가 흔들리면 결국은

나라경제도 어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요!

라디오를 들어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같고, 마누라가

바가지를 굶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은 많은데, 호주머니의

자금 사정은 좋지 않고, 고민 고민하며 걱정을

차곡차곡 쌓아서 가슴속에 넣었다가, 어느 날

카드를 긁어버리고 빚이 조금씩 늘어가게 되어

타들어가는 속앓이를 하다가, 불현듯 뇌리를

파고드는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말지요!

하지만 절대로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눈물지으며

달이면 달마다 가슴을 때리는

랄라리(음운 법칙으로 씀)같은 너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채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아야 하는 나 자신이 원망스럽구나!

올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주변 사람들의 원성이

찰대로 차 이제는 관심조차 없구나!

칼날 같은 그 성격을 이제는 새롭게

틀바꿈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팔을 걷어붙이고 너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할퀴고 찢긴 그 상처를 아물게 했으면 좋겠구나!

갈길이 아득히 먼 인생길 나그네가

날이 저물고 어둠이 내리는데 희미한

달빛이 나그네의 발걸음을 재촉하네!

달랄라~ 노래도 불러보고

말없이 흐느끼며 시름을 달래봐도, 내딛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구나!

살아온 인생보다 살아갈 날이 짧음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 남은 인생길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찰나에 어데선가 은은하게 풍겨오는 그윽한

칼피스 향기가 이 마음을 사로잡는구나!

탈출구가 어찌면 보일 것도 같은 기대감에

팔을 걷어붙이고 내일 하루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잠을 청해 본다!

거역할 수 없는 인생의 진리를

너라고 어찌 모를리가 있겠느냐...?

더러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더 라도 참고 살아라!

러시아에서 돈을 벌려고 나온 여성도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 근심이 많기는 마찬가지란다!

버드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가지를 옆으로 비키듯이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Salix_koreensis_01.JPG

서러운 슬픔이 앞에 닥치면, 눈물을 흘리기 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저 자신의 강한 의지를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

처량한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대선가 복이 든

커다란 풍선이 날아오다가도 갑자기

터져버리고 말 것이다. 마음 속에 선행을 가득

퍼담다 보면 언젠가는 슬프고 외롭고

허전한 일들은 사라지고 환희에 넘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가장 무서운 적(敵)은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비야(鄙野)하여 깎아 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 하자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라선형으로 자꾸만 자신을 비비 꼬아서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우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통스럽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정을 주려고 하여도

자꾸만 거절하고 곱지 못한 시선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차버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외롭게 몰아가지요!

카풀(car-full)제도를 시행하여도 이런 성격의 소유자는 차에

타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요.

파전이라도 맛있게 부쳐서 먹이려고

하여도 결국 먹지 않고 사양하거든요!

[illegible]

Aries 양자리

<http://cafe.daum.net/2006ilsin/9gHg/5852>

[docid=19oIMl9gHg|585|20080825074539&q=%B0%D4%BA%B0%C0%DA%B8%AE&srchid=CCB19oIMl9gHg|585|20080825074539](http://cafe.daum.net/2006ilsin/9gHg/5852)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는 찻집에서

남녀가 서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담소(談笑)를 나누고 있네!

람흥(濫興)을 가라앉히려고 차를 한 모금 마셔봐도

맘속에 흥분이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네!

밤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준다고 하는 등

삼태기로 행복을 퍼다 준다고 하는 등

완만 믿어 온 약속을 하여도

잠시 그 때, 그 사랑을 잡기위한 약속일 뿐이었던 말인가?

참다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일진대....

감감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사람은 오직

탐욕에 불과하고 오히려 불행의 무덤을

팜으로서 서로가 상처를 받을 것이니.....

함부로 가슴을 열지 말고 부모님과 상의하십시오!

검(劍)으로 살아가는 자는 검으로 인해 해(害)를 당하듯이

범실거리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범뱃다가는 목숨이 열 개라도 모자라고, 아무리

범스펠드 미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여도, 전쟁을

범취야 할 때에는 군대를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범을 잡으려면 범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데

범뜩한 느낌이 든다고 겁을 내면 범은 커녕 토끼도 못 잡지요!

범격히 말하자면 현시대가 제아무리

범점 점 고도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다고 하여

범단 장비로 이루어진 무기를 갖고 있지만

범컴한 지하 동굴로 이루어진 곳에서는 인간이기에

범병 하고 돌멩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범퍼짐한 엉덩이가 주저앉게 마련인데

범준한 산속 동굴에서는 첨단 무기도 소용이 없지요!

(이라크 전쟁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을 선술집에 홀로 앉아

뇌까린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되지도 않을 일을 억지로 강행 하다 보니

뢰굉음(雷宏音)이 들리며 벼락을 맞을 수 밖에....

http://100.empas.com/dicsearch/pimage.html?s=&i=198516001&en=198516&p_i=&a_i=&e=1

뫼에 한 줌의 흙이 될 몸인데, 선조(先祖)들을 어찌

뵈올 셈인가...?

쇠고랑을 찰 일일랑 절대로 범하지 말지어다!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 답답하다고, 성질난다고

죄를 짓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지어다!

최고가 되길 바라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살지어다!

괴괴한 냄새가 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언제나

퇴보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괴자(字)는 써먹지도 못하면서 고심을 해 봤됐자

회의만 느낄 뿐 아무런 소용이 없느니라!



일반 혈액투석은 투석막을 경계로 형성된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 사이의 농도차를 이용한 확산원리에 의해 요독을 제거하는데 비하여 on line- HDF의 혈액투석여과법은 확산 기전뿐 아니라 수분의 이동에 의하여 요독이 제거되는 대류 기전이 추가되어 우리 몸의 신장에서 요독을 제거하는 기전과 가장 흡사하다고 알려져 있다.

<http://www.tjnews.co.kr/ArticleView.asp?intNum=1701&ASection=001001>

고혈압과 당뇨병에 합병증을 앓고 있는

노인이나 젊은 사람들을 보면

도저히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볼 수가 없다. 피를

로테이션(rotation : 회전)시켜 걸러내야 하고

모든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도 없으며, 주로

보리밥과 같은 잡곡밥에 채소를 많아 섭취하고

소금과 같이 짠 음식은 피해야 한다!

오줌에 섞여나오는 혈당 검사를 수시로 해야

조금씩 차도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초기에 모든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코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조심하지 않고

토할 정도로 마구

포식을 하면 결국 혈당이 위험 수치로 올라가

호전되었다가도 악화되는 경우가 있지요!

가만히 앉아서 참고 있자니, 화가 치밀고

나가서 한바탕 싸우자니, 동네가

다 시끄럽고 창피한 일이니, 집안에서

라이타 불에 담배만 피워대니까

마누라가 매웁다고 야단일세!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사면초가(四面楚歌)라는 표현이 맞는지...? 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세상에

자식별 같은 사람이 어른을 발길로

차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카랑 카랑한 목소리로 해대는 것을 보고

타내자니 들을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놔두자니

파탄으로 갈 그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 타오르는 담배연기만 바라보네!

구호의 손길이 필요한 수해현장에 오셔서

누구든 봉사활동을 해 주신다면,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고마운 일이지요! 지난 해 태풍

투사 때에도

무수히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도움이 되었는데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또다시 태풍 매미로 인해

수재민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의 탁월한 협동심으로 수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으면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이 춥지 않게 방안에서

쿠키라도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지낼 수 있도록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임해 주신다면, 수재민들은

푸념하며 한숨짓는 얼굴은 사라지고, 고맙게

후원해 주신 국민 모두에게 사의를 표할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당신이 그렇게

나를 믿고 따라와 주어서 고맙구려!

다른 것은 몰라도 오직 하나 믿음과 사랑이

라는 진실함이 두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뿔뿔해야 뿔 수 없는

바늘과 실이 되어 늘 서로를

사랑으로 엮어내게 해주었구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그대와 나

자신만이 연출할 수 있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그 사랑이 그 어떤

카운터블로우(counterblow)를 맞는 환경의 지배를

타인으로부터 받을지라도 일편단심을

파기하지 않고 언제나 이 세상 다하도록

하나가 되어 끝까지 살아갑시다!

당 염불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농 간(弄奸)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당 정 못다는 며느리 맹물 발라 머리 빗는다는 말처럼

롱 슈우트(long-shoot)를 날린다고 헛발질을 하고나면

당 근 짐을 진 것과 같이 다리만 아프지요!

풍 사정신을 갖고 매사에 충실하며, 남의 것을

송 두리째 빼앗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또한

옹 졸한 생각을 하며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 잡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음해하려 든다면

충 애(寵愛)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 밥 먹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참된 삶이

통 념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잔잔한 호수에

당 당 돌을 집어던져 파장이 일게 하여 서로가

홍 역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http://blog.daum.net/cjsgus/6131346>

가까이 있을 때에는 몰랐었는데, 이렇게

나와 멀리 떨어져 헤어지고 나니, 모든 것이

다 그리움으로 뼈에 사무치는구나!

라스트(last : 마지막)로 만났던 그 기억조차 희미한

마른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지 오래일세!

바람에 구름 가듯 세월의 수레바퀴는 쉴

사이도 없이 흘러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아픈 추억을 간직해야 하는가?

자기 자신의 성찰(省察)을 게을리 한 잘못을

차마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방안에서 홀로 앉아 ;

카세트 테잎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에

타는 가슴을 소주 한 잔에 의지하는구나!

파혼(破婚)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만 주는 것이니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을 영원히 사랑하십시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10331.html

가까운 곳인데도 갈 수 없는 신세라네,,,!

나라의 허리는 끊어져 있고, 철새들은

다오고 가는데 철조망으로

라인(line : 선)을 그어 삼팔선을 막아놓고,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대로 늙어 죽어야 하는가...?

바람도 잘 넘어가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렇게 부모형제 처자식을 못 만나고

아~~~! 이대로 눈을 감아야 하는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 날은 언제런가...?

차라리 새가 되었다면, 넘나들 수 있었을 텐데...

카레이스를 벌릴 정도로 차가 많은데도 못가니

타고 또 타는 이 가슴만 치는구나!

파헤쳐 버려야 할 그 철조망. 저 삼팔선을

하루 빨리 제거하고 이 나라를 통일하세!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3354.html

구 조조정 한답시고 약자를 유린하고 있으니

누 가 보아도 정말 한심한 일이구나!

두 말 할 필요없이 약육강식을 그만 두어야지...

루 머가 좋지 않게 퍼지게 된다면 국민의 분노를

무 엇으로 막으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부엌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에 나가도 새는데

수 없이 새바가지로 바꾸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구나!

우기는 것도 한도가 있을진대, 돈 갖고 장난을 쳐서

주기도 조작하여 빼앗아 가는데 서민들은

추수 때가 되어도 거둘 것이 없구나!

쿠테타를 일으키고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는데

투쟁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희생을 당한 이는

푸념을 하며 저 세상엘 갔어도 명예회복은

후일로 미루기 바쁘고 아니라고 우기는구나!

주해 : (루머(romour/romor : 소문))

구 월 그믐날 따가운 가을 햇빛에

누 렇게 익어가는 들녘을 바라보니, 젊은 남녀

두 사람이 다정하게 걸어오네!

루우즈(rouge : 프랑스 어)도 바르지 않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무 룡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은 여인이

부 끄러운 듯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수 좁어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우리 아들 딸들도 저렇게 성장하여

주 말이나 휴일이면 부모님을 뵙는다고

추 수를 하는 바쁜 일손을 거들어 줄려나?

쿠 렁쿠렁 뱃속이 허전한 것을 느끼니

투박한 함지박에 새참이 기다려지는구나!

푸 성귀 안주에 막걸리 한 대접 들어켜고

후 추가루 쳐 수제비 한 그릇 먹는 맛이 일품일세!



http://miznet.daum.net/cook/cook/recipesearch/Recipe_detail.asp?RecipeNo=297

개천절을 기념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의 우수한 저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단결합시다!

래방(來訪)하는 교포들도 한국인에 대한 긍지를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배달 민족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는

새역사 창조를 위해 이 나라의 굽어진 허리를

애국 애족의 신념으로 굳게 뭉쳐 통일을 이룩시다!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함께 극복하고, 축배의 잔을

채울 수 있도록 기쁜일은 다 같이 건배를 합시다!

개버려야 할 비리와, 반목과, 아집과, 편견을 버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여

패기있고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우렁찬 함성이

해외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힘을 모읍시다!

골 탕을 먹이려고 작정을 하고서 허구한 날

놀려 댔으니 가슴에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돌 계집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롤링(rolling: 로울링)이 심할 정도로 흔들려 댔으니

몰려오는 그 고통을 어느 누가 알리오!

볼 꼴 사납게 살아 가느니.... 이 꼴 저 꼴 안보고

솔직히 죽고 싶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라오!

올해가 지나면 나아지려나? 하고, 허리띠를

줄라매고 그토록 애를 썼건만... 약자를 유린하는

출랑거리는 정책으로 인하여 김빠진

콜라맛이 그야말로 가관이로구나!

톨게이트(toll gate)에서 수집한 통계가 엉망인데

폴카 춤을 시조풍의 음악에 맞출 수가 없어

홀로 흥얼거리다가 잠이 드는구나!

간선도로 복단에 위치한 다리위에서
난간에 걸터앉아 오가는 자동차를 내려다 보다가
단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심코 바라본 2층집에서
란을 곱게 손질하는 여인이
만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이네!
반백이 된 머리에는 인생의 역경을 말해주는 듯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구나!
안경을 쓰고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잔주름이 하나 둘 씩 늘어가는 내 나이또래 좀
찬 것 같은 모습에 웬지 모를 여운이 남는구나!
칸을 하나 하나 채워가는 인생의 길목에서
탄식한들 가는 세월을 어느누가 막을손가?
판단의 기준을 정하기도 전에 스쳐 지나가는
한 때의 풍광(風光)앞에 물끄러미 앉아 바라보고만 있네!

가마 타고 서방님 따라서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1g0253a>

나들이 가던 그 옛날 새색시 적에 곱게

다듬어 빗어 올린 머리에

라선형으로 예쁘게 쪽을 찌 비녀를 꽂고

마냥 즐거운 듯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구나!

바람결에 나부끼는 갈대 숲을 지나

사방으로 둘러 쌓인 산자락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네!

자취도 흔적도 없는 그 추억의 지난 일들이

차창 밖의 풍경처럼 스쳐 지나가는구나!

카사노바의 향연처럼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젊은 날의 불꽃이 이제는 저~어~기, 저

파~아~란

하늘에 덧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허무 한 인생아....!

구 두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를 잡아야 하고

누 룡지를 먹으려면 밥을 태워야 하고

두 더지를 잡으려면 땅을 파야 하고



금빛두더지 /금빛두더지(*Chrysochloris stuhlmanni*)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03g0444a>

루수(漏水)가 되는 지붕을 고치려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하듯

무슨 일이든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지요!

수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노력하며

우여곡절 끝에 성공을 하는게 요즈음 실정이지요!

주어진 소임을 다하지 않고, 대강

추려서 얼렁 똥땅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가는

쿠테타와 같은 엄청난 시련을 맞게 될 것이오!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충실하며 열심히 산다면

푸짐한 행복의 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니...

후세에 훌륭한 민족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고리대금 업자가 이자 받아 달라고 청부 폭력하고

노동자들의 착취를 위해 공권력에 부탁하고

도둑질 하는데 망쫄 봐 달라고 부탁하고

로스구이 먹으면서 허기진 자에게 술 사오라고 하고

모밀국수 맛있다고 선전해 놓고 밀가루 섞어 만들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이제는 그만 정리하고

오직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조상님들 뵈기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지듯이

코흘리게 어려서 부터 정직함을 가르친다면

토종 한우라고 속여서 수입소를 파는 일 없을 것이며

포도청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는 일 없을 것이오!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우리 모두 정직하게 삽시다!

기약도 없는 이별 열차를 앞에 놓고

니를 보내야 하는 이 심정은 마치

디프테리 아(diphtheria : 심장마비)에 걸린듯 하구나!

리미트 스위치(limit-switch : 한계에서 작동하는 단자)처럼 한계에 도달한

미움으로 가득하네!

비마져 주룩주룩 내리는 플렛트 홈에서 어차피

시련과 고통을 줄 인연이라면

이대로 영원히 보내드리리!

지나간 세월 동안 사랑으로 인한

치명적인 상처만 남겨놓고 떠날바에는

키스 자국도 그 느낌도 모두 갖고 떠나지.....왜?

티없이 맑고 고왔던 얼굴에

피눈물로 얼룩을 만들어 놓고 떠나버린 슬픈 사랑의

히스테리(Hysterie)가 내 머리를 흔들어 놓는구나!

곡 주[穀酒]를 한 잔 마시니, 입안이 살살

녹 는 그 맛이 너무 좋아 향아리를 갓다 놓고

독 채로 마셔버렸으니 안 취할 리가 없지요!

록 봉(녹봉 : 祿俸)을 받는 사람이 근신(謹身)하지 않고

목 에 걸리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마셨으니, 어찌

복 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속 이 뒤틀리고 괴로운 것을 말도 못하고

옥 수수 밭에서 구토와 설사를 해대는 꼴이라니

족 숙(族叔)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직자의 공무수행은

축 도(蜀道)를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

콧 콧 쑤시는 정곡을 찢러 조연을 한다고 하여

톡 쏘듯 돌아서지 말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폭 주를 하지 말지어다! 주의하지 않으면

혹 이 튀어 나오도록 국민들로부터 질타(叱咤)를 당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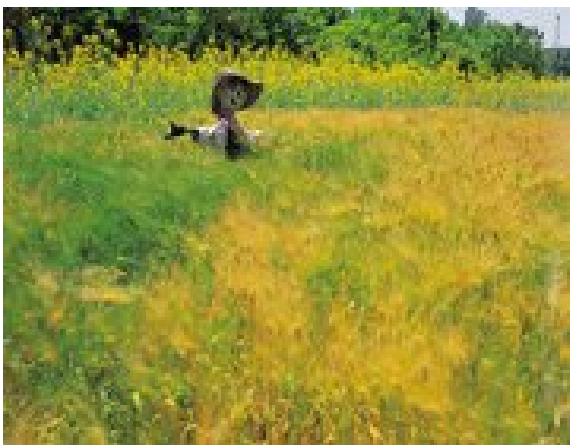
고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그리도 예쁘더니

노여운 마음으로 바라보니 저리도 미울 수가.....

도대체 인간의 정이 얼마나 간사하길래 잘해주면

로미오나 클레오파트라같이 보이다가도 잘못하면

모자를 꼭 씌워놓은 허수아비같이



<http://enc.daum.net/dic100/contents.do?query1=b25h0179a>

보잘 것 없이 취급해 버릴 때가 있으니....

소화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잘못을 저질러도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준다면

초취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예쁘게 보일 터인데

코앞에 이익을 생각하고 훗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토라진 마음이 돌아설 리가 없지요!

포근한 마음으로 늘 사랑해준다면

호랑이처럼 사나운 맹수도 좋아할 것입니다!

깎 깎한 보리밥을 먹기 싫어도

날 마다 먹으면서 어렵게 살던 그때!

말 린 식구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호강이

랄 것도 없이 바쁘기만 했던 그 때 그 시절!

말 없이 그 고생을 참으시며 집안 식구들의

빨 래며, 반찬거리며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고



[http://cafe.daum.net/kss4006/u12/289?](http://cafe.daum.net/kss4006/u12/289?docid=6wBfl|u12|289|20080925111336&q=%BB%A1%B7%A1%C5%CD&srchid=CCB6wBfl|u12|289|20080925111336)

[docid=6wBfl|u12|289|20080925111336&q=%BB%A1%B7%A1%C5%CD&srchid=CCB6wBfl|u12|289|20080925111336](http://cafe.daum.net/kss4006/u12/289?docid=6wBfl|u12|289|20080925111336&q=%BB%A1%B7%A1%C5%CD&srchid=CCB6wBfl|u12|289|20080925111336)

쌀밥은 따로 두어 밥을 지어 시부모님께 드리고

알뜰살뜰 살림살이를 하시던 어머니!

쌀순이는 고사하고 수돗물도 없는 시골에서 겨울에

찰대로 찬 얼음물에 손을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하시고

칼날 같은 성격의 할머니 비위 맞추시느라 집안이

탈없이 지내게 하시려고 꾹꾹 눌러 참으시던 모습이

팔방미인처럼 느껴지던 그 어머님께서 손주 녀석의

할머니 소리 몇 번 들으시고 세상을 떠나신 그리운 어머니!

가을의 길목에서 코스모스 꽃이 화사하게 피어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Cosmos_bipinnatus4.jpg

나를 반기고 있네!

다소곳이 서서 오가는 길손들에게 웃음을 지으며

라선형으로 고개를 흔들고 인사를 하는구나!

마주대하는 꽃잎이 이내 수줍은 듯

바라보는 눈길을 피해 고개를 돌리네!

사계절 중 유일하게 가을에만 피는 꽃이

아마도 멋-적은 듯 홀로 피어 친구들의

자리를 깔려고 기다리는 것 같구나!

차가 지나갈 때마다 내뿜는 매연에 목이

카랑카랑한지 차바람이 불때마다 고개를 외면해 버리네!

타낼 수 없는 인간들의 환경오염이 동.식물들의 심장을

파괴하고 있음이 안타까웁기만 하구나!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바라보며 괴롭다고 호소하는 것 같네!

간 성 청간정은 동해바다를 굽어보고



<http://www.cyworld.com/cry5000/324199>

난 리통에 찢겨진 소나무 가지는 송진으로 때웠구나!

단 청의 고 운 빛깔은 나그네 마음을 위로해 주고

란(卵)을 품고 새끼를 돌보던 갈매기들은

만 선의 기쁨을 아는지 오징어 배를

반 기듯 날개짓을 하는구나!

산 허리를 휘감은 양구의 태백준령에

안개의 웅장한 모습은 복잡한 머리속을

잔 잔하게 가라앉히네!

찬 란한 태양은 안개 깔린 저 산 위에 떠오르고

칸 칸이 막아놓은 첩첩 산 봉우리들은 보는 이로 하여금

탄 성을 지르게 만드는 구나!

판 초 우의(雨衣)를 입은 초병들은 휴전선을 지키는데, 이 강산

한 반도의 평화는 언제 쫌 오려는가?

귀여운 손주 녀석을 등에 업고 있다가 소변을

늪는 것을 깜빡 잊고 말았네!

뒤가 축축해오고 따뜻해지는데, 손주 녀석이

뤼뤼하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지껄이다가

뭉뭉하고 등에서 들까부르고 야단이였다.

뵈뵈하는 소리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쉬가 마렵다는 소리를 못 알아 듣고 말았으니....

위에서 난리를 칠 수 밖에 없지 않은 노릇인가..?

쥬잡아 먹은 얼굴을 하고 며느리 눈치 챌까봐 술에

취한 척 해버리는 수 밖에....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소변 냄새와 섞여서 마치

튀김집의 화장실 냄새라고나 할까.... 무엇이 좋은지?

푼뽀하며 등에서 내려놓은 손주녀석은

휘감은 포대기 끈을 잡아당기고 있네!

골목길에 슬쩍 남몰래 내다버린 쓰레기는

늘부 심보를 가진 사람들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 행위지요!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노는 학생들이 봐도

몰래 갖다 버린 양심 없는 사람들은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20060920150518677&p=yonhappr>

볼기 맞을 짓을 한 것입니다!

솔선수범하여 청소를 해도 부족한데

올빼미처럼 밤에 누가 보지 않는다고

졸렬(拙劣)하게 내다버린 양심을 보면 속이 상하지요!

출랑거리며 따라다니던 강아지가 쓰레기 봉지 속

쿨라병에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툴스토이의 모험처럼 입으로 하나 둘씩 꼬집어 냈지요!

풀카 춤을 추듯 앞발로 쓰레기 봉지를 파헤쳐

홀랑 쏟아버리니 더욱 지저분해지고 말았지요!

갈 대밭에 은빛 물결은 찬란한데



[http://cafe.daum.net/kopost/FTJn/37?](http://cafe.daum.net/kopost/FTJn/37?docid=18xos|FTJn|37|20081007165913&q=%B0%A5%B4%EB%C3%E0%C1%A6&srchid=CCB18xos|FTJn|37|20081007165913)

[docid=18xos|FTJn|37|20081007165913&q=%B0%A5%B4%EB%C3%E0%C1%A6&srchid=CCB18xos|FTJn|37|20081007165913](http://cafe.daum.net/kopost/FTJn/37?docid=18xos|FTJn|37|20081007165913&q=%B0%A5%B4%EB%C3%E0%C1%A6&srchid=CCB18xos|FTJn|37|20081007165913)

날이 저물어 또 하루가 가는구나!

달빛에 흔들리는 으악새 풀을 바라보며

랄랄~ 랄라~랄라 ~ 소리내어 가을노래를 부르니

말 못할 외로움에 만감이 교차하네!

발 길을 멈추고忆새풀을 메만져 보니

살갓이 보드라움을 느끼네!

알차고 유익한 대 자연의 조화를

잘 보존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을 위함일진대....

찰각 찍은 한 장의 사진으로 추억을 만들 수는 있지만

칼끝으로 찍어버린 지난 날의 상처와 흉터는 쉽게

탈바꿈하기 어렵다는 것을 왜 미처 몰랐을까..?

팔자타령에 한숨을 내 쉰다고 주름살이 퍼져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듣지 않을 수가 있을까?

가을이 깊어지고 산에

나무잎들도 모두

다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있는데.....

라이타 라든가, 인화성 물질은 산에 들고 가지 마십시오!

마른 낙엽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바람을 타고 애써 가꾼 나무가

사정없이 타버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귀여운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모두 불조심을 합시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카스트레오 음악에 취해 담배 꽂초가

타들어가는 것도 모른채 무의식중에 차창 밖으로 던지지 마십시오!

파란 하늘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올 가을에는 산불을 조심합시다!

감 독을 소홀히 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이웃과

담을 쌓는 일은 절대로 하지마시다!

람획(濫獲)을 일삼다 보면 씨가 마르게 되고

맘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끝내는

밤새 안녕하며 영결종천(永訣終天)을 하지요!

삼라만상(森羅萬象)을 뒤로 하고 그 몸쓸 불치병인

암에 걸려 저승으로 떠나게 될 때

잠고대 같은 소리로 후회를 하지 마십시오!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해가 넘어간

캠캄하고 어두운 밤에 단풍구경을 할 수 있을까요?

탐욕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되는 것이니

팜유를 먹고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고

*팜유(palm-oil : 야자 기름 : 뇌물)

함께 솔직한 대화로서 풀어 가십시오!

골 짜기 마다 울긋불긋 단풍의 빛깔은 고운데....



http://ko.wikipedia.org/wiki/%EA%B7%B8%EB%A6%BC:Kae_de_07d4617c.jpg

놀 러 나온 등산객들은 자연과 호흡하며

돌 아다니고 기암괴석(奇岩怪石) 절경에

롤 링이 심한 산비탈길의 경관은 사람들을 흥분으로

롤링 (rolling : 회전하는 모양 ; 영문식 발음으로 표현)

물 고 가기에 충분하지요!

불 거리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슬 직히 말해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는

을 가을 단풍놀이도 한 낮 그림에 띄인 것을 ...!

줄 부들이야 그래도 먹을 것 다 먹고 맛을 부리며

출 랑대고 차를 몰아 사시사철 구경다니며

콜 라겐(collagen : 교원질)이 풍부한 건강식품 먹어가며 고속도로

톨 게이트(tollgate : 고속도로 요금 징수소)를 거만을 떨며

풀 락풀락거리고 통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이 생각납니다!

거룩하신 당신의 그 마음을 여태껏

너무 몰랐습니다. 그토록 포근하고 아늑하고

더없이 그윽했던 그 큰 사랑을 이제서야

러브-송(love-song)으로 불러 봅니다.

머나 먼 그 옛날 추운 겨울에도 이 자식의 발이 얼까봐

버선마저 벗어나서 신겨주시며 당신 자신은

<http://search.daum.net/search?w=tot&q=중요민속자료%20제40-4호>

서릿발이 허영게 내린 길을 맨발로 걸어가신

어머니!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당신의 그 숨소리가 이제는 너무

저절하고 가슴이 아파옵니다!

커다란 사랑을 주신 그 어머니께서 이제는

티를 잡고 영원히 가실 집을 지으셨습니다.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눈물짓는

허무한 이 자식의 외침을 듣지 못하시나이까...?!?

구린 냄새가 진동하는 늙은 몸을

누가 좋아하리오마는, 근력이 없어 몸에 대소변을

투루마리를 해 놓고서 망령을 부리는 노인을 보면서

루안(淚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죄가 많아 이렇게 고생하시는지? 그 어머니를

부들켜 안고 울었습니다. 나 어렸을 때 기저귀를

수 없이 갈아뉘신 어머니인데, 어찌 거부할 수 있으리오...?

우주에 세상만사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일진대, 세상이 변하고

주변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추한 모습을 하고 계신 부모님을 학대하거나

쿠렁쿠렁한 배에 주름살이 보기 싫다고 부모님께

투정을 부리고 효성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푸르고 상상했던 자신의 앞사귀도 머지않아 낙옆이 되어

후회하며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거액의 뇌물에 현혹되어 인간의 진리를

너무 벗어나 버리고 있으니 말이오!

더러운 돈, 개도 물어가지 않는 돈이 무엇이길 래..?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도 돈을 벌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것일까..?

버는 것은 힘들고, 쓰기는 쉬운데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액의 비리가

어처구니 없이 자행되고 있는 사실들이

저렇게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을 보면서

처량하고 한심한 생각만 드는구나..!

커가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런 비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퍼져만 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근로자를 생각해 주시오!

고 독하게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노 인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구나!

도 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여

로또 복권 맞을 때를 기다리다가 늙은

모 친을 소홀히 모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보 잘 것 없는 생활의 연속일지라도

소용없는 헛된 꿈을 좇기보다 자신을 위해

오직 일평생을 희생하신 어머니께 따뜻한

조 석을 올리고 문안드리며 살아가십시오!

초 승달 바라보며 정한수 떠놓고서 빌고 또 빌던

코 흘리게 어린시절에 그 어머니 모습

토끼같은 자식을 키우면서 자꾸만 떠오릅니다.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media_view&query1=k22t006901p4jpg&n=b22t2960a

포 근하고 아늑하기만 했던 그 어머니께서

호호백발이 되어 세상을 떠나시니 더욱 그리웁습니다!

가을바람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꽃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msMBbe9dys\\$](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kmsMBbe9dys$)

나무들도 뒤질새라 단풍으로 답례하네!

다리맡에 물속에서 노니는 고기들에게

라면 부스러기를 던져 주니 맛있게 먹네!

마음속에 드리워진 허전한 가슴을 차가운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모두가 제 갈길로 찾아가는구나!

아득하게 먼 그 옛 추억 만이 쓸쓸한 기억속에

자리하고 떠나지 않네.....!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카렌다(calendar ;달력) 몇장에 추억의 사연마저 눌러 버렸네!

타오르던 열정을 아직도 간직하려고 이 가슴에

파고 묻었건만, 세월의 뒤편길을 누군가가 부는

하모니카 소리에 더듬어 향수를 느끼게 하는구나!

거 칠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너 그러운 사랑을 받지 못한 때문이지요!

더 렵혀진 몸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러브-신(l ove-scene)을 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 물려 있고 싶어도 머무를 수가 없고

버 림을 받기 일수지요!

서 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아픈 심정을 그 누가 알아주나요?

자 격지심(自激之心)에 울고 있는 사람이

차 가운 냉소(冷笑)를 견딜 수 있으리요!

카 페리(car-fer ry)호가 아무리 멋있는 풍경을 제공해도

타고 가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 없고

파 란 바닷물이나 바라보고 있거나,

하 늘이나 쳐다보는 부질없는 사랑이겠지요!

깎 꼼하게 집안을 치워놓고, 정리를 한 다음

날 마다 음식을 만드는 법이며, 집안 살림에 대하여

말 에게 가르치고 지도를 한다면, 시집가서 절대로

랄라리같이 살림을 하지 않을 것이며, 시댁 어른들께도

말 들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빨래를 할 때에도 깨끗하게 하고

쌀을 씻어 밥을 지을 때에도 음식물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살림을 하며, 소금처럼

짤 정도로 짠순이 소리를 듣는다면, 칭찬이 가득

찰 것입니다!

칼질을 할 때에도 항상 조심하여야 하고, 차를

탈 때에도 예의를 지킨다면, 아무리 성격이

팔을 걷어붙이고 화를 내는 시어머니라도, 순한

할머니처럼 사랑해 주실거예요!

註 : **랄**라리(날라리의 음운 법칙으로 씀)

기 등 서방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데
니가 뭔대?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요..? 얼굴을
디밀고 들어서자마자 여자는 머리에 꽂은
리본을 집어 남자에게 던지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미우면 밉다고 할 일이지..! 왜? 그렇게

비정하게 사람을 들들 볶고, 날마다

시비를 걸고,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시오! 그렇게

치사하게 사람 감정을 돌구지 말란 말이오!

키가 작다고 트집이고, 못생겼다고 하지 말고

티끌만큼도 미련이 없으니, 내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게 만들지 마시오! 그렇게 나를

히스테리(Hysterie)에 빠지게 만들지 말아 주시구려!

고 시공부 한답시고, 여대생하고 날마다

노 는 재미에 빠져 책을 멀리 했지요!

도서관에 간다고 하고서 친구들과 어울려

로스구이 철판구이에 소주를 마셨지요!

모 난 돌이 정(鎭) 맞는다고 하는 말 처럼 날마다

보름달이 떠서 밤길을 밝혀주는 줄 알고

소용없는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니.....

오금이 저려울 수 밖에 없지요!

조석으로 열심히 책을 읽어도 합격을 하기 힘든데

초등학생도 아닌 고시생이 친구들과 어울려

코를 질질 끌 정도로 마시고 또 마셨으니.....

토요일 날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포복절도(抱腹絶倒)를 할 일이 벌어졌으니... 시골에서

호 밋자루가 닳도록 일하시는 부모님을 좀 생각하시구려!

고 추잡자리가 날고 있는 드높은 가을 하늘...

노 오란 은행잎이 땅에 떨어져

도 로며 골목이며 텅구는 이 가을에

로 타리(rotary : 교차로) 한쪽 길옆에 서서

모 자를 쓰고 지나가는 여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네!

보 는 것 만으로도 설레임은 말 할 수 없는데....

소 매자락이라도 스친다면(?) 노총각의 넓은 가슴은

오 그라들고 말 것입니다!

조 그만 월세방에서 시작하더라도 올가을에는

초 승달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일 수 있다면

코 끝이 찡~ 할 정도로 행복할 것입니다!

토 정비결에 의하면 구, 시월에 좋은 배필을 만나

포 응을 하며 구인을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

호 시절(好時節)이 노총각의 외로움을 덜어줄꺼나.....?

가시밭길 걸어온 기막힌

나의 인생길을 이제 와서 그 길을

다시 또 가라하면 나는 못가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행가 가사처럼

마디 마디 슬픔 뿐이네!

바닥에 뒹구는 낙엽처럼

사방을 둘러보아도 허무한 마음 뿐일세!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이정표가 없고

자책골을 넣은 축구 선수의 마음처럼

차라리 꿈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카레이서(car-racer)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도 하지 못한채 흘러가버린 그 세월이

하얀 머리카락을 희끗 희끗 머리에 이고 있네!

거침없이 앞으로만 전진을 하다보면, 뒤에

너무나도 많은 오점(汚點)이 남게 되지요!

더러는 뒤를 돌아보고 잘못된

러브스토리(love-story)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으며

버릇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서로에게 모두 불편한 감정만 사게 되지요!

어떠한 경우여라도 겸손은 최고의 미덕이며

저 혼자 잘났다고 오기를 부리며, 잘못

처신하게 된다면, 그 자신에게 있어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터놓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남의 잘못을

퍼뜨리지 말고 조용히 지적하는 것이 좋으며, 서로

허심탄회(虛心坦懷)하게 대화를 한다면, 밝은 세상이 올거예요!

굴 욕적이고 치욕적인 역사속에 억울하게

눌려 살던 그 때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둘도 없는 이 나라를 왜구(倭寇) 들의 식민지 통치하에

룰(rule)에도 없는 국권마저 빼앗기고, 나약하게

물려서야만 했던 그 때를 상기합시다!

불같이 끓어오르는 민족혼을 일깨워 어떤 나라의

술수(術數)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막강한 이 나라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줄기차게 뻗어가는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진의

출사표를 던진 천군만마의 드높은 기백을, 낮잠이나

쿨쿨 자는 나약한 민족으로 만들어 사기를 떨구지 마십시오!

틀(tool)에서 제시한 원칙과 규정을 지키고, 문제를

풀어간다면 분명히 이 나라 대한민국은

훌륭한 민족이 되어 세계속에 우뚝 설 것입니다!

가슴 시린 그 아픈 이별 후에

나의 잘못이 너무 컸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방의 한 쪽 구석에 틀어박혀 앉아

라이타 불에 담배를 붙이며

마담에게 넋두리를 늘어놓는구나!

바람결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홀독한

사랑의 몸살을 앓고 난 지금, 쓰리고 쓰린

아픈 가슴을 쓸어내리며, 지난 그 세월을

자성하며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없는 사랑을 영원히 간직하겠노라! 또한,

카드(신용 카드 및 포커 등, 등)를 함부로 쓰지 않을 것이며

타인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파장이 없는 진실한 삶을 위해

하루 하루를 알차고 유익하게 살아가리라!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오후

나뭇잎들도 을씨년스럽게 떨어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쓸쓸함 만이

라운지 창밖에 물안개처럼 피어오르네!

마흔이 넘은지 엇그제 같은데.....

바람같이 흘러가는 세월이 오십고개를 넘는구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들을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온 과거를 회상하며

자승자박(自縛自縛)의 그물에 걸린 줄도 모르는 채

차디 찬 이 겨울바람을 맞게 되었구나!

카플링(모터 고무팩킹의 일종)이 빠져버린 모터처럼 온몸에

타격을 받고 말았구나!

파충류도 모두 겨울잠에 들어갔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시절을 모른단 말인가?

가 불인생이라고 무조건 쓰다보면

나중에 손에 질 것이 없는 빈 월급봉투 뿐이지요!

다리미질 하기 싫다고 세탁소 드나들고

라면을 끓이기도 귀찮다고 자장면 시켜먹고

마당질 하는 것 귀찮다고 농사를 안짓는다면

바닥이 들어난 쌀통만 있을 겁니다!

사정이 있다고 하여도 언제나 절약하고

아껴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연히 부유한 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차츄름 차츄름 모아지는 재미에 절수(節水) 절전(節電)하게 되며

카드를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이

파산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오!

공기가 맑고 깨끗한 두메산골의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에

동네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그 때 그 시절!

롱-스타킹(long-stocking)은 커녕 양말도 제대로 못 사신던 그 때!

몽땅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추운 어느 날, 신문지로 만든

봉지에 번데기를 담아 팔던 아저씨 모습이 떠오릅니다!

송사리며 개구리 잡는다고 얼음물에 빠졌던 기억도

웅고집을 부리며 투정을 부리고

중잡을 수 없는 말로 어머니의 속을 썩이던 모습과 멀리서

총소리가 간혹 들렸던 그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콩을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드시던 어머니!

통이제는 다시 볼 수 없음이 몹씨도 안타깝습니다!

풍풍은 커녕 트리오 같은 세제도 없이 찬물에

홍당무 처럼 빨갛게 된 손을 호~호~ 부시던 그 어머니!

각 오를 단단히 하고 출발하여도, 도중에

낙 오자가 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닥 치는 대로 흐지부지 살아가지 마십시오!

락 천적(樂天的 :한문투의 표현)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 바지에 물리면 담도 뛰어넘지요!

박 수갑채를 받을 정도로 성공하려면

삭 일(朔日 : 초하루)이나 말일(末日 : 그믐날)이나 똑같은 마음으로

악 착같이 살아가십시오!

작 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또한, 언제나

착 하게 행동하는데 인식하지 말고, 되는 일이 없다 하여

컹! 하고 한 목숨 버리려 한다면, 그 또한 안될 일이오!

탁(濁) 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나오면 반듯이 당신을

팍 팍 밀어주는 후원자가 많을 것이오.....!

학(鶴)처럼 살다가신 불쌍한 어머니를 좀 생각하시구려.....!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먼 친척보다 이웃의 도움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라켓((racket)을 들고 공을 칠 수 있는 상대도

마일의 어렵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상대도

바로 이웃이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명심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 주치는 이웃이

자고 있을 때 화재가 나도 물을 들고 뛰어오지요!

차(茶) 한잔 같이 마시며 이웃과 정을 나누다 보면

카시미론 이불처럼 포근함을 느낄 것입니다.

타향살이 하는 사람일수록 가슴을

파고 드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기 쉬운 인사부터 시작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의

녹으려진 애국심을 고취(鼓吹)시키고자 합니다....!

독을 튼튼히 보강하면 홍수를 막을 수 있고

룩작안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등산을 하면 안전하지요.

묵묵히 조국의 발전을 위해 선봉에 서서

북채와 지휘봉을 들었던 순국선열들의

숙연(肅然)한 의지가 있었기에 이 나라를 살렸지요!

옥박질림과 고문과 수없이 많은 적들에게

죽을 고비를 당하여도 오직 조국의 광복을

축원하며 결연(決然)한 독립운동을 하시며, 총탄에 맞아

쿨쿨 썩어오는 팔 다리를 나무 지팡이에 의지한 채

룩하면 쓰러지기를 수없이 하여도 또다시 방공호를 삼으로

폭폭 파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며, 추위에 떨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몸으로 싸워서 지킨 나라지요..!

註 : 룩작(Rucksack : 도이칠란드 어, 등산용 배낭)

고 등어 자반을 구워서 가시를 잘 발려

노 할머니는 손자에게 먹이는구나....!

도 덕이 땅에 떨어졌다고 하여도

로 친(老親)이 자손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 성애는 변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보 은(報恩)을 모르고 자식들이 부모를

소 흘하게 여기며 효도를 하지 않을꼬?

오만하고 불손하게 부모를 학대하는구나..!

조 석으로 문안 인사를 드려야 하며, 늙고 병들은

초 취한 몸이라 하여 행여 악취가 날지라도

코를 틀어막고 비위가 상한다고 뽀뽀거리며

토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오..!

포 근하고 아늑하게 그 부모님을 감싸안으며

호 천망극(昊天罔極)의 효성을 다하시구려..!

구 돌장을 업고 사지를 벌리고 큰 뗏자로

누웠으니 이 세상 모두가

두려울 것이 없는데,,,,, 왜 이리

루안(淚眼)에 서러운 생각만 들어가니.....

무슨 사연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부질없는 그 사연을 이야기 한들

수식어만 좋지 않게 불을 터인데 ...

우려한 대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주체할 수 없는 이 몸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추심할 기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네!

쿠미스 맛도 모르는데 술 취했다고 덮어씌우니

투덜거릴 수 밖에 별 수가 없지요!

푸닥거리를 해야 원혼을 달래 주는데.....

후련한 해결책은 그 언제나 나오려나!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니

너의 모습이 예쁘게 비출 수가 없구나!

더러운 오물을 잔뜩 뒤집어 쓴 것처럼

러시아에서 불어온 북풍한설에 마치

머리는 삼발을 풀어헤친듯 사방으로

버려진 쓰레기가 날리어 지저분 하구나!

서동부언(胥動浮言)은 날이 갈수록 점점

어수선하기 그지 없으니 참으로 위정자들이

저질(低質)정치를 하는구나!

처신(處身)사납기 그지없는 비리와 부정은

커질대로 커진 풍선처럼 그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퍼붓는 국민들의 비난을 외면하고 있으니

허가 낸 도둑이란 오명을 깨끗이 닦으시구려!

간 단한 일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난 처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지요..!

단 조롭게 보이는 화분의

관 초도 관리를 소홀히 하면

만 개(滿開)할 수 없게 되므로

반 듯이 지켜야 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산 통을 깨버리기 십상이지요!

안 전하고 편한 질서를 조금 귀찮다고 하여

잔 껍을 부리고 국법 질서를 무너뜨려 결국

찬 반 투표를 하게 만들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칸 이 조밀한 모눈종이에도 규칙을 어기면

탄 두(彈頭)가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판 정을 잘못하게 되면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한 눈을 팔고 있는 사이에 다 물거품이 되지요.....!

가리마를 왼쪽으로 티서 곱게 빗은 머리에

나부끼는 머플러를 보기 좋게 목에 걸치고

다정스럽게 걸어가는 연인들.....

라이브 카페에서 창문으로 내다보니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구나..!

바로 엇그제 나에게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사물의 이치가 다 그러하거늘.....

아가씨 시절이 지나고 아줌마를 거쳐 할머니로

자신의 모습이 바뀌는 줄도 모른단 말인가..?

차감(差減)할 수 없는 시간들은 마치

카세트 테잎에서 흘러나오는 노랫말처럼 바람을

타고 이리저리 흘러가는데

파란 저 하늘에 떠가는 구름만이

하얇게 변해가는 내 머리를 메만져 주려나....?

갈 팡질팡 길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날 벼락 맞는 교통사고를 당하기 십상이지요..!

달 려드는 차량이 없는지 좌우를 살피는 것이 좋은데....

랄랄랄라~ 흥얼거리며 귀에 이어폰(ear-phone)을 끼고

말 팔랑이처럼 무단 횡단을 하다가 온동네를

발 각 뒤집어 놓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살 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이미 늦은 것을

알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길 바라오..!

잘 지키면 편안한 길, 안 지키면 고생길, 아차하는

찰나(刹那)에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칼은 칼집에 넣었을 때 안전하듯이, 교통질서를 지켜

탈 없는 가정과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국민이

팔을 걷어붙이고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온 힘을

할애(割愛)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 덩이를 파고서 그 땅속에

누워서 살아가려고 하였던 말인가?

두 더지처럼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루안(淚眼)을 흘리며 이라크의 지도자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자신의

부 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 얼마나

수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우상의 모습은 결국 그렇게 비참한 것이지요!

주 문(呪文)을 외우며 어떠한 신(神)에게 매달려도

추악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용서 받을 수 없지요!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투창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닌 생화학무기로 죽이고

푸짐한 성찬과 축배를 들었던 비인간 적인

후세인은 하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가?!

가는 해를 바라보며 한해 동안

나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를 하였는가..?

라는 생각을 하며 어딘지 모르게

마음의 한구석이 석연치 않구나..!

바라보는 저 노을속에 붉은 태양이 서서히

사라지는 모습을 못내

아쉬워 하며 금년 한해를 정리해 본다..!

자연의 섭리를 순응하며 나름대로

차질없이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였건만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가계부는

타산이 맞지 않고 적자를 보고 말았네..!

파도가 넘실거리는 수평선 너머로 모든 시름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저 태양에 실어 보내고 싶구나..!

고생만 하신 불쌍한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노년에도 불편하신 몸으로 하루 하루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참으시며

로우프(rope)에 의지한 채 겨우 겨우 움직이시더니

모로 드러누우시며 하시던 말씀이

"**보**나 마나 이제 아무래도 못 살 것 같다! " 던,

소리마저 희미하게 귓전에서 맴돕니다!

오르지 이 자식의 성공만을 바라시며

조석(朝夕)으로 빌고 또 빌어주시던 그 어머니!

초대장을 보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어머니!

코끝이 찡하게 가슴속 깊이 저며오고

토해내는 이 자식의 슬픈 눈물은 그침이 없네...

포근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이

호수위에 드리워진 노을 속에 아련히 피어오르네..!

구 세군 자선남비속에 십시일반으로 모아지는 성금은

누 이 좋고 매부 좋은 고마운 일 입니다.

두 손으로 예쁘게 넣은 정성어린 마음이

루돌프 사슴코처럼 빨그레하게 피어 올라

무 겁고 힘든 짐을 진 불쌍한 사람들에게

부 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수 족이 불편한 장애인과 불치병으로 희망을 잃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더 이상 우리 모두는

주 저하지 말고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주셔서

추운 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베풀시다!

쿠루시(kurus :터키의 화폐 단위) 한푼, 두푼이 모여

투병생활에 찌든 사람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정말

푸근하고 인정이 넘치는 사랑의 힘을 넣어주는

후생사업(厚生事業)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족들은 전쟁통에 뿔뿔히 흩어지고

나 중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마을에

다 쓰러진 집들 뿐, 그 속에서도 살겠다고

라 이타 불로 미군들이 먹다 버린 찌꺼기를 주워서

마 른나무에 불을 붙여 끓이던 그 때 그 시절...!

바 닥에 상도 펴놓지 못하고 맨땅에서

사 발도 없이 다 찌그러진 냄비에다 끓인 죽을

아 침 부터 저녁까지 먹었던 그 시절..!

자 라 목처럼 추워서 바짝 움츠러지고

차 갑고 차가운 날에도 따뜻하게 덮을

카 시미론 이불도 없이 새우잠을 자야 했던 그 시절을

타 산지석(他山之石)으로 생각하고 온 국민들은 이 나라를

파 국으로 물고가지 않도록 일치단결하여

하 루 하루 주어진 자신의 일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 지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느긋하게 긴장을 풀고 있다가는 오점이

드러나기 쉬우니 언제나 노력하거라!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에 잘 나갔던

므스것이라고 할지라도 세월의 변화속에서

브랜드(brand)가치가 떨어지면 그것은 곧

스캔들(scandal)에 오르내릴 수 있을 것이니, 몸이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즈음하여 이 애비가 네게 이렇게 타이르는 것을

츠기너길 생각을 갖기 보다 네가 이후에

크게 되면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트로피(trophy)를 받았다고 자만하지 말고

프로(pro)로서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흐트러짐이 없이 끊임없이 노력하거라!

가꿈씩 머리속에 떠오르는 그 모습과

나긋나긋한 정겨운 그 목소리를

다시 또 만나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실나락 같은 희망을 가져보지만

마한 시대에 떠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바로 몇 달 전에 떠난 사람이 돌아올리가 없지요!

사랑했는데...! 보내기 싫었는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그렇게도

자상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차디 찬 이 겨울밤에 싸늘한 바람을 맞으며

카멜레온(chameleon : 라틴어)이 나무에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듯

타조처럼 긴 목을 길게 빼고 두리번거리며

파란 눈동자를 깜빡거리려도 눈물만 불을 타고 흘러

하얀 눈 위에 떨어질 뿐, 그 님은 보이지 않네...!

기 | 델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몸이

니 | 자신을 알아야 할 것을..... 어찌자고

디 | 지털(digital)세상에서 아날로그(analog)방식을 강조한단 말인가.?

리 | 더(leader)로서 성장하여 대성공을 바란다면

미 | 운사람이든 고운사람이든, 아니

비 | 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노숙자이든 상관없이

시 | 종일관 사랑으로 포용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이 | 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라고 하며

지 | 졌다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한숨만 쉴것이 아니라

치 | 밀하고 확고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지점을 향해

키 | 를 꼭 잡고 어떠한 험한 파도가 앞에 닥쳐도

티 | 끝만큼도 흔들림이 없이 정상을 향하여

피 | 나는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겸한다면(?) 분명

히 | 말라야의 최고봉인들 못 오를 리가 없을 것이오....!

가눔 뒤에 단비가 그리도 반갑듯이

나눔 뒤에 오는 기쁨은 매우 크지요.

다른 사람 의 어려움을 헤아려 돕는다는 것은, 곧

라이타에 연료를 공급하는 원리와 같아서

마음의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람이 있다면 새해에는 모든 국민들이

사랑과 화합으로 푹푹 뭉쳐

아름답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각자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차디 찬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웃과

카드 빗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타협의 정치와 법질서를 잘 지켜서 이 나라가

파행의 어두운 그늘진 곳이 없게 되기를

하느님께 두 손 모아 간절하게 빌어 봅니다.

기 공송락을 보냈기에 받았지만 본인은

니들의 뜻을 따를 수가 없구나!

디지털(digital)시대라고 하면서

리더(reader)들이 그렇게 약육강식을 계속하면

미움과 빈축을 살 것이요! 더 이상 국민들을 아날로그(analog)로

비유하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는 무섭게 변화하는데 그렇게 대충 하다가

이잡듯이 살살이 뒤지는 컴퓨터에게 적발당하여

지축을 흔드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치도곤을 받아야 정신을 차릴런지? 도대체

키-보드(key-board)에 글자는 보이지도 않습니까?

티끌만큼의 부정도 용납할 수 없을 진대

피땀을 흘려 이루어 놓은 것을 강제로 빼앗아 가니

히스타민(histamine)에 걸릴 수 밖에 없지요!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나날을 보내야 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다중화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라이벌(rival)의식을 갖고 국가의 막중대사 처리를

마지 못해 졸속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바라움건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아집과 반목으로 얼룩진 비리를 걷어내고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충성심에 불타는

차원 높은 정책을 수립하시어 조국통일의 화려한

카니발(carnival)축제를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타국과 외세에 억눌림 당하지 않고 자주국방의

파수꾼이 되시어 온 국민들이 환희에 넘치는 두 팔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만세를 부를 수 있게 하소서..!

가 족 구성원이 흩어지게 되면, 결국

나 라의 존립도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다 른 것은 고사하고 핵 가족화 되어가는 지금

라 면도 끓여 먹을 근력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마 을의 독거노인들을 보면서 그들도 젊었을 때가

바 로 얼마 전이었는데... 산아제한(産兒制限) 한답시고

사 내 아이 하나 낳고서 그 길로 병원에 가서

아 이를 낳을 수 없게 수술을 하였지요..!

자 식이 잘 자라서 커가는가? 싶더니 어느 날 갑자기

차 에 치어 교통사고로 죽게 되니 어찌할꼬....?

카운트 다운(count-down)에 들어간 노인 문제, 고령화 사회를

타 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부에서 보육시설 및

파 격적인 사회보장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 나만 알고 둘을 모른다면 낭패를 당할 것이오!

고만 고만한 아이들이 골목에서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 나도 모르게

도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지는구나.....!

로결위상(露結爲霜)은 자연의 이치인 것을, 어찌

모를리가 있겠나만은..... 나도 저렇게 어린시절

보드라운 피부에 티없이 맑았던 얼굴이,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주름살과 흰 머리가 되었음을 비로소

오늘에야 더욱 실감나게 하는구나.....!

조종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인생의 수레바퀴는

초침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려오는데, 이제 와서

코앞에 닦친 종착역을 계산해보니, 정말

토정 이 지함 선생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구나.....!

포로가 되어버린 인생열차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호르몬(Hormon) 작용에 의해 쇠퇴할 수 밖에 없음이 안타깝구나..!

고 조선 시대 우리나라의 반만년 유구한 역사를

노리는 중국의 현재 고구려사(史)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의 고대 역사보다 더 중요한 문화유산을

모조리 송두리째 왜곡하려고 하는데....?

보물보다 더 값진 그 역사를 몇 몇 사학자들과

소시민 단체에서만 찾으려하는 것 보다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도록 국가에서

조속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부터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하여

코끝이 찡하도록 그들의 잘못을 일깨우고

토를 달지 못하도록 완벽한 국가 기강을 세웁시다!

포효하는 위력적인 대한민국의 높은 기상을, 종이로 만든

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남북한 온 민족이 일치 단결합시다!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넉넉하지 못한 서민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덕망이 높은 원님네들 입후보 할 당시에는

럭키 7(lucky seven)을 외치며 잘하겠다고, 처음에 굳게

먹었던 그 마음과 그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벅찬 가슴을 억누르며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석달도 못가서 방송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억대 비리 그것도 수백억이라 하니...?

적어도 서민들은 단돈 몇 원 만 연채하여도

척하면 삼척이라고 신용불량자로 모는 세상에

컱하고 목에 걸려도 좋으니 그 돈을 만져나 봅시다!

텍을 책상에 내리찍어 혀를 물고 자결을 하여

퍽하고 쓸어져 죽을지언정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헉헉대며 하루하루를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보십시오!

가 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인해

나 라 전체가 뒤숭숭한데.....

다 른 것은 고사하고라도 정치나 안정이 되었으면....

라 디오를 들어봐도, 신문을 펼쳐봐도 국민들은

마 음이 편하지 않구나!

바 닥으로 떨어진 도덕은 회복하기 힘들고

사 람들의 끈끈하고 훈훈한 정마저 없어졌네..!

아 무리 세상의 인심이 횡행(橫行)하다고 하여도

자 식이 부모를 외면해서는 아니 될텐데.....

차 기 총선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을까.....???

카 네이션 꽃에 담긴 꽃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

타 락한 국정질서 및 가정경제를 바로 세웁시다!

파 벌의 꿀을 메울 수 있도록 국가의 모든 현안들이

하 루 속히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좋겠구나.....!

거짓과 진실의 대립속에서 이 나라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혼란스럽기만 하구나..!

더러운 돈! 개도 물어가지 않는 그 돈 때문에

러시-아워(rush-hour)시간대에 정체 된 도로처럼 꽉 막혀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버려야 할 좋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

서민들만 고통을 받을 뿐 소용이 없으니

어찌해야 종단 말인가.....?

저렇게도 많은 돈을 수 백억씩 해먹었는데

처량하게 단 돈 몇 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라니.....?

커다란 실망만을 안겨주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터져나오는 국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들리느냐....?

퍼렇게 손발이 얼도록 생선이며 야채를

허구한 날 팔아도 목구멍에 풀칠 하기도 힘들구나...!

개 구리가 동면을 하고 있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는, 나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가득한데....

대 추나무, 호두나무 그리고 마을어귀 성황당에는

래방(來訪)하는 길손들에게 무병장수를 빌어주던 천을

매 달아 형형색색 형겅이 걸려 바람에 나부끼네..!

배 추밭, 고추밭 고랑에서 미친듯 뛰어다니던 강아지

새 끼가, 사람들이 예쁘게 가꿔놓은 것을

애 써서 기른 보람도 없이 다 망쳐버렸네..!

재 미있게 뛰어놀던 그 느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 강아지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캐 갱(깨갱거리다의 사투리)거리며 도망을 치던 모습이 눈에 선하구나..!

태 버린 그 고향의 향수가 촉촉히 젖어오고 시대의

패 러다임(paradi gm)속에 변화의 폭은 넓어졌어도

해 를 더할수록 더욱 그림기만 한 그 때, 그 시절아..!

고 향으로 달려가는 귀성객들의 가슴속에는

노 부모님을 빨리 뵈고 싶은 마음에 들떠있는데.....

도로는 막히고 미끄러운 눈:길이 힘들게 하네...!

로우다(road snowplow car 제설차의 약칭)가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뿌리지만

모든 운전자들은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가려고 하다가 부모님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오순도순 가족들의 즐거운 설을 맞이하시려면

조심!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초조한 마음에 길이 막혔다고 짜증을 낸다면

코흘리게 어린아이가 다 웃을 일이 아닐까요....?

토종닭을 잡아 놓고 기다리시는 부모님께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드리고, 세배를 드릴려면 조심운전 하셔서

호사로운 우리 민족의 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구 렷나루를 덩수룩하게 기르고, 도대체

누 군지 알아볼 수도 없게 눌러 쓴 모자 옆으로

두 발(頭髮)이 길게 자라 바람에 휘날리네.....!

루 마니아 국기 문양의 상의를 입고

무 선 전화기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면서

부 탁을 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래도

수 상한 느낌이 들어서 혹시 테러 용의자가

우 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닌가(?)하고

주 의 깊게 살펴보았지요!

추 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가게에서

쿠 키 하나 사서 먹으며 왈.... 아! 왜? 그렇게 보시요?

투 박한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그 사람은

푸 념을 하듯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 **후**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모양 이 된다는 것을 잘 아시오!? "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이 세상이 오염되어 산하(山河)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부터 남아공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가

머지 않아 쓰레기 천국으로 변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대!

버려진 오물은 결국 수질 및 대기를

서서히 악화시켜 인간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을 용서 하시옵소서....!

저 자신만 깨끗하고 주변은 더러워도 된다는 식의

처신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하여

커다란 재앙을 내리실까봐 걱정이옵니다!

터널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퍼져오는 신종 바이러스(Virus)를 퇴치하려고

허우적거리기 보다 우리 모두 환경오염을 줄입시다 ;

거짓을 보고도 참이라고 말을 한다면

너를 바보라고 칭함이니,,,,, 그러한 말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거라!

러브-스토리(love-story)를 들어보면 정말

머슴처럼 부리면서 착취하기 위한 술책에 걸려들어

버거운 삶 속에서도 곳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서글픈 사연도 많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하고 정겹고 가슴이

저미는 일들도 많이 있지요!

처절하게 살아가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커다라 꿈을 안고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데

터춧대감을 몰아낼려고 별의 별 거짓말을 꾸며서

퍼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로구나!

허튼소리로 보은을 모르고 더 이상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남들이 하는 것을 다 따라서 해보고 싶어서

달배도 한 . 두대 따라 피우게 되지요!

람동(濫動)으로 인해, 때로는 부모님의

맘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밤낮으로 조심하여야 할 것이오!

삼가하고 또 삼가할 것은 혈기가 왕성하여

앞수, 자웅(雌雄)을 못가리고 날뛰다가 부모님이

잠을 편히 못 주무시게 하지 말 것이오..!

참을 인자(字)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처럼

캄캄한 집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탐욕과 방탕한 생활은 하지 말고, 진실한 우물을

팜은 꿈, 자기 자신을 위한 길이며, 머지 않아

함박 웃음을 지 을 수 있는 기쁨의 날이 올 것이오..!

고명딸을 예쁘게 길러 시집을 보내려니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구나!

도시에서 자란 것이 농촌 총각과 만났으니....

로심초사(勞心焦思), 좌불안석(座不安席)이로구나!

모르는 것도 많고, 해보지도 힘든 농사 일을

보나마나 시부모님 눈에 들지 않을 텐데....!

소금 장수가 비 올까봐 걱정하듯

오늘도 딸년 걱정 때문에 머리가 멍하구나!

조금 더 데리고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초목이 덮인 산골이 좋다고 네가 선택한 길이니...

코피가 나도록 피곤한 하루가 되더라도 절대로 불만을

토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속상한다고

포대기에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엘 온다면

호되게 친정 아버지 한테 꾸중을 들을 줄 알아라.....?

괴질(怪疾)의 바이러스(Virus)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뇌물청탁 비리로 얼룩진 이 나라를 정직한 사회로

되돌릴 길은 정녕 없단 말인가...?

뢰광천복비(雷轟賤福碑)를 당해 하늘의 저주를 받아

모에 한줌의 흙이 된다고 하여도 결코 조상님들

보을 낮이 없을 것이오!

쇠퇴해가는 이 나라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외마디 비명소리가 절로 나오는구나!

죄를 짓고 하늘에 용서를 구하며 애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괴자(字)를 붙여 놓고 비만 치료제라고 허위광고 하지 말고

퇴사(退思)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포자(字)를 갇다 놓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으니....

회초리가 아니라 물불기를 매우 쳐야 할 것이오!

거 참하게 내세운 공약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 털웃음을 지으며 한 약속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더 잘살게 해준다면 그 말을 한 사람들은 모두

러시아로 떠났습니까? 방콕으로 갔습니까?

머지 않아 남북통일 된다더니...? 다 늙어 병든 몸을

버티고 버티다가 죽고 말았으니.... 영혼마저

서러워서 저승에서 울고 있네.....!

어렵고 힘들어도 통일의 그 날을 기다리며, 손, 발이

저리도록 일을 하며 원천징수 당하여 세금을 냈는데.....

처참하게 배신당한 느낌이란 말이오.....!

커다란 뭉치돈들은 억, 억, 억하며, 연일

터져나오고 있으니..... 국민들의 원성이 온 나라에

퍼져가는 것을 원님네들은 들리십니까....?

허탈한 심정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구려.....!

고 대산 정상에서 사방을 내려다 보니

노 적봉처럼 산봉우리가 한 눈에 들어오네...!

도 사가 된 심정으로 두 손 모아 신령님께 기도하기를

로 불무병장수(老不無病長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모 든 국민들이 마음 편히 살아 갈 수 있게 하소서..!

보 름달처럼 둥근달이 하늘에 떠올라 소나무에

소 복하게 쌓인 눈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는데.....

오늘 밤 이 추운 밤을 높은 산 정상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 심스럽게 정성을 드립니다!

초 소에서는 동족의 가슴에 서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코 앞에 휴전선 철조망을 바라보며 울음섞인 목소리로

토 하기를 이제는 동족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는 일을

포 기하고, 이 민족 , 이 강산을 하나로 통일하여

호 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게 하소서...!

重傳 이희빈 가나다라행시 제 3 권

블로그 重傳/이희빈 블로그 <http://blog.daum.net/hblee9362>

저자 重傳 이희빈

발행일 2011.02.19 21:32:51

 블로그